

주제: <텍스트 분석방법론: 기호학과 담론분석>

담당: 황인성

2009년 2월 19일

<언어학 -> 기호학 -> 담론 -> 지식/권력>

[참고문헌] Stuart Hall, "The work of representation," in S. Hall(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1997, ch. 1.

1. Representation, Meaning, Language, Reality

@ 재현 이론: 반영론과 구성주의론

'representation'은 특정 문화권내의 구성원들이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과정으로서, 사물의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기호의 사용을 포함. 이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들: (1) 반영론적 이론, (2) 의도 이론, (3) 구성주의 이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1)과 (3)의 기본 가정 차이. (1)에 의하면, 이 세상의 사물(objects)이나 사람(people) 또는 사건(events)의 의미는 이미 그것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언어'(글과 이미지 모두 포함)는 마치 거울처럼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진실된)의미를 단순히 반영할 뿐임. --> 여기서는 언어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 즉, 각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코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 반면에, 언어의 사회적 속성을 인식하고 있는 (3)에 의하면, 사물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지 않음. 사물의 '의미'는 '언어'(개념이나 기호 등)와 같은 재현 시스템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 구성주의자들이라 해서 물질세계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단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물질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시스템 또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개념을 재현하는데 사용되는 그 어떤 시스템임을 주장. 물론, '언어'도 물질적인 속성을 갖고는 있음(예: 소리, 이미지, 글씨 등). 다만, 의미는 언어(또는 기호)의 물질적인 속성대신, 그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에 의존해서 구성되는 것임. --> 당연히, 문화연구적인 전통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3)의 관점이고,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포함됨: (1) 기호학적 접근(Saussure의 영향)과 (2) 담론적 접근(Foucault의 영향).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나중에)

[사례] '교통신호등'에서 작용하는 '색color' 기호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색'

자체를 알아야하고, 둘째, 그러한 색의 ‘용례’를 알아야 함.

(1) ‘색’ 기호 구별하기. 예를 들어, ‘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 기호 구별. 즉, 각 ‘색’ 기호들의 구분은 그들 간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즉 의미작용을 하는 것은 ‘색’들의 ‘차이’(difference)에서 비롯됨. 예를 들어, 여기서, 기호들 간의 ‘차이’=‘가치’=‘의미’. (예) ‘GOD’와 ‘DOG’의 의미의 차이.

(2) ‘교통신호’ 코드 이해하기. ‘빨강’->정지, ‘초록’->진행, ‘노랑’->준비. 이 구분은 각 ‘색’들에 부여된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즉, 기호(언어)로서의 ‘색’ 이름 사용법인 ‘코드’를 이해하는 것.

[정리]

--> 의미를 만들어 내거나 전달하는 것은 각 ‘색깔’ 자체도 아니고 그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나 단어도 아님. 그것은 단지 색깔을 나타내는 기호들의 ‘차이’에 의함. 이런 맥락에서 구성주의자들의 결론: 모든 기호들은 ‘자의적’(arbitrary)이며, 자의적이라 함은 한 ‘기호’(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나 ‘개념’(기의) 사이에는 어떤 본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보다 의미는 기호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코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함. 따라서 의미는 ‘상대적’인 속성을 지닌다.

--> 나아가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님. 단어의 의미는 변화함. 예를 들어, ‘빨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북한, 공산주의, 좌익 등의 의미를 연상시켜왔으나, 몇 년 전 월드컵 때의 ‘붉은 악마’의 등장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

--> 이러한 논리를 문화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 보자.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특정 사회와 특정 역사적 시기에 한정적인 사회적 관습 체계의 결과라면, 모든 의미는 특정 역사와 문화 안에서 생산되며, 영구히 고정되는 대신 항상 한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그리고 한 시대로부터 다른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 따라서 불변의, 보편적인 유일한 ‘참 의미’(true meaning)는 존재하지 않음.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기표와 기의 사이의 부득이한 결합을 풀어냄으로써 의미를 해체한다는 것. 재현에 대한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주어진 의미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새로운 해석을 해내는 작업.

2. 소쉬르 모델에 대한 평가

소쉬르의 위대한 업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사실’(social fact)로서의 ‘언어’ 자체, 재현 과정 그 자체, 그리고 언어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의미생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하게 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를 단순히 ‘사물’과 ‘의미’ 사이를 중재하는 투명한 매체라는 위상을 벗어나게 했다. 그 대신, 그는 ‘재현’이 하나의 ‘실천’(a practice)임을 보여주었음.

--> 한편, 소쉬르의 작업은 언어의 ‘형식’formal 측면(rules and codes를 포함하는 *langue*, 즉 언어시스템), 즉 언어의 작동 방식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경향. 따라서 언어의 더욱 상호작용적(interactive)이고 대화적인(dialogic) 속성인 *parole*, 즉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 실제 여러 사람들의 언어 사용 상황에서의 언어의 기능 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음. 그래서 언어사용과 관련된 권력의 문제(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위와 위상의 사람들 사이의 발언 문제)는 부상하지 않음.

3. 언어에서 문화로의 전환: 언어학에서 기호학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소쉬르의 작업은 문화를 언어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좀 더 광의적인 관점의 연구로 전화되면서 ‘기호학’semiotics를 낳게 됨.

--> Barthes의 경우: 대중문화 현상 또한 하나의 언어로서 그것을 통해 의미가 커뮤니케이트 된다고 봄. Barthes에게 다양한 대중문화 행위와 대상들은 기호임. 예를 들어, 바르트는 wrestling을 하나의 분석 text로 놓고 관찰함으로써 레슬링의 의미를 찾고자 함. 그는 레슬링의 과장된 제스처는 그가 순수한 과도 스펙터클(spectacle of excess)이라고 부르는 것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언어라고 함.

--> Levi-Strauss: 문화적 풍습, 의례, 샤머니즘, 디자인, 브라질 원시부족들의 신화와 설화 등의 문화적 *langue*를 발견함으로써 이들의 의미를 찾고자 함. 따라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 현상들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underlying rules and codes들을 연구함. 이러한 접근 방식을 현대 텔레비전 텍스트 연구로 확장시켜보면, 스크린 상의 영상 이미지들은 모두 기표가 되고, 텔레비전 연속극의 코드는 장르가 된다. 연구자들이 할 작업은 각 이미지들이 무엇인가(의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분석.

--> 기호학적 접근에서는 글이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물 자체도 의미를 생산해내는 하나의 기표로 작용. 예를 들어, 의상 자체도 의미를 만듦. 예를 들어, 이브닝드레스->우아함, 보우타이와 연미복->formality, 진과 트레이너복->캐주얼 의상, 선선한 가을날의 스웨터 차림->긴 숲속 길 산책. 기표와 의의의 이러한 관계는 denotation이 아니라 connotation level에서 작동. Connotative meaning은 사회적 이데올로기라는 더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작동. 즉, 한 사회의 일반적인 신념, 개념 틀과 가치 시스템 등과 연계됨.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2nd level의 의미작용이 더욱 일반적이고 세계적이고 널리 통용되며, 문화와 지식

그리고 역사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다고 봄. 바로 이러한 지점이 문화적 환경이 우리의 재현 시스템에 개입하는 지점임.

--> Barthes의 유명한 *Paris Match* 표지 사진 분석 사례: 흑인 병사가 프랑스 국기에 경례하는 장면이 어떻게 자신을 억압하는 프랑스 제국주의와 식민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신화’(myth)적 의미작용을 하는가 분석.

4. 언어에서 담론으로(From language to discourse)

@ 담론, 권력, 주체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래 과학적인 의미론을 기획했던 기호학 프로젝트는 소쉬르에 이어 바르트로 이어지면서 결국 더욱 그 실현가능성이 작아졌다. (예를 들어, 바르트의 기호학적 연구는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느슨하면서도 해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후기 연구에서 그는 언어의 규칙과 법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점점 더 텍스트를 둘러싼 의미와 욕망의 ‘유희’(play)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따라서, 의미와 재현 문제는 인문학적 전통이 지향하는 해석적 연구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그러한 전통이 다루는 주요 주제들, 예를 들어, 사회, 문화, 인간 등과 관련된 주제들은 과학적인 사회 법칙을 발견하고자하는 실증주의적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이 후 문화의 해석적 특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해석(interpretations)을 통해서만 종국적으로 결코 ‘절대 진리’(absolute truth)의 순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Derrida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최종적 의미’(final meaning) 개념은 언제나 끝없이 연기되는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기호학은 재현 과정을 언어에 국한시키고, 그것을 폐쇄적이고 정적인 시스템으로 여기는 듯 했다. 이후 이어지는 연구들에서는 점점 더 ‘재현’을 ‘사회 지식’(social knowledge) 생산의 원천(source)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s) 및 ‘권력 문제’(questions of power)와 긴밀히 연결되는 개방적 시스템으로 여기게 되었다. 기호학적 연구에서 주체는 기본적으로 언어와 관련하여 그 중심에서 쫓겨난 신세였는데, 후기 기호학적 전통에 오면 다시 논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역사적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어떤 문제에 대해 누가 더 큰 힘/권력을 가지고 발언하는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Foucault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19세기 후반에 오면 정신이상인 여성 환자들에 대해 남성 의사들이 주도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점점 더 연구 관심이 지식과 권력이라는 더욱 거시적인 이슈에 맞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Foucault는 ‘재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례보다 더욱

협소한 방식으로 사용. 하지만, Foucault는 재현 문제에 관한 새로운 그리고 의미 있는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의 주요 관심은 (단순히 언어가 아닌) 그가 소위 ‘담론’(discourse)이라 칭하는 것을 통한 '지식 생산'(the production of knowledge)에 관한 것이었다. 단순히 의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작업은 소쉬르나 바르트가 행했던 기호학적 연구에 비해 훨씬 더 역사적인 차원의 연구로서 역사적인 특수성(historical specificities)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듯이, 그의 주요 관심은 ‘의미 관계’(relations of meaning)가 아니라 ‘권력 관계’(relations of power)에 있었다.

Here I believe one's point of reference should not be to the great model of language (langue) and signs, but to that of war and battle. The history which bears and determines us has the form of a war rather than that of a language: relations of power not relations of meaning... (Foucault, *Power/Knowledge*, Brighton, Harvester, 1980, pp. 114-5)

푸코는 헤겔의 맑시즘(‘변증법’ ‘the dialectic’)과 기호학을 모두 아래와 같이 거부한다.

Neither the dialectic, as logic of contradictions, nor semiotics, as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can account for the intrinsic intelligibility of conflicts. 'Dialectic' is a way of evading the always open and hazardous reality of conflict by reducing to a Hegelian skeleton, and 'semiology' is a way of avoiding its violent, bloody and lethal character by reducing it to the calm Platonic form of language and dialogue. (Foucault, *Power/Knowledge*, Brighton, Harvester, 1980, pp. 114-5)

@ 언어에서 담론으로(From language to discourse)

우선적으로 주목할 점은 푸코에 있어서 관심이 ‘언어’에서 ‘담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푸코가 연구한 재현 시스템은 ‘언어’가 아닌 ‘담론’이었다. 푸코는 ‘담론’을 일반적 의미인 단순한 ‘글’이나 ‘말’ 대신 다른 의미로 사용.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여러 다른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생산하고 담론을 통제하는 규칙과 실천들이었다. 푸코에 의하면, ‘담론’은 ‘특정한 역사 시기에 특정한 토픽에 대해 말하는 언어를 제공하는 진술 다발(a group of statements), 즉 지식 재현 방식(a way of representing the knowledge about...)을 가리킨다....

담론은 언어를 통한 지식생산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실천들이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한 의미들이 우리의 행위에 모양새를 만들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실천들은 담론적인 측면을 갖는다.’(Hall, 'The West and the Rest,' in Hall, S. and Gieben, B. (eds.), *Formation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1992, p. 291, 스투어트 홀, ‘서양과 그 외의 사회들: 담론과 권력,’ 스투어트 홀 외 저 / 전효관 김수진 박병영 역, 『현대성과 현대문화』, 현실문화연구, 1996, 427쪽).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담론* 개념은 단순히 ‘언어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언어와 실천(language and practice)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말(what one says)과 실천(what one does)의 구별을 극복하는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담론은 주제(topic)를 구성한다. 담론은 우리 지식의 대상을 규정하고 생산한다. 그것은 어떤 토픽에 대한 진술이 의미를 갖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방식을 지배한다. 또한 어떻게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고 타인의 행위를 통제하는데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준다. 담론은 어떤 토픽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어떻게 말하고, 쓰고 행동하는 것이 용인(rule in)될 수 있는지 규정해주는 한편, 그 토픽과 관련하여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 토픽과 관련하여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그 토픽과 관련하여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구축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한다(rule out). 푸코에 있어서 담론은 결코 어떤 하나의 진술이나 하나의 텍스트 또는 하나의 행위나 하나의 정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일한 담론(특정 시기에 있어서의 사고방식의 특성 - 푸코는 이를 ‘에피스테메’라고 칭함)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제도 사이트들에서 여러 부류의 텍스트들을 통해 드러난다. 한편, 이러한 담론적 사건들(discursive events)이 동일한 대상에 관한 것이고, 동일한 스타일을 공유하고, 공통된 제도적, 행정적, 정치적인 전략/패턴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같은 ‘담론구성체’(discursive formation)에 속한다고 한다.

푸코에 있어서, 사물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고정된 의미가 없다. 그 사물은 오로지 ‘담론 내에서만’(within discourse) 의미를 갖고 지식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어떤 것도 ‘담론 밖에서는’(outside of discourse) 의미가 없다. 푸코에 있어서, ‘madness’, ‘punishment’, 또는 ‘sexuality’ 등의 주제는 그들에 관한 담론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madness’, ‘punishment’, 또는 ‘sexuality’ 담론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게 된다.

- (1) ‘madness’, ‘punishment’, 또는 ‘sexuality’에 관한 진술들로서, 이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주는 것.
- (2) 이러한 토픽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방식이 용인되고 그 외 방식들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처방해주는 규칙들로서, 특정한 역사 시기에 이 토픽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도해주는 것.

(3) 이런 담론과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들’(subjects), 예를 들어, 미친 사람, 정신병자, 범죄자, 일탈자, 성도착자 등. 이들은 해당 시기에 그 토픽들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는 방식을 알고 있거나 혹은 주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4) 특정 시기에 이러한 토픽 관련 지식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 즉 그렇게 구축된 ‘진리’(truth)를 구체화하는 방법.

(5) (3)에서 제시된 주체들을 다루는 제도내의 실천들. 정신이상자들을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범죄자를 규정대로 처벌하기, 성도착자들의 도덕적 훈련 등.

(6) 향후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담론이나 에피스테메가 등장해서 새로운 담론구성체의 장을 열고, 그에 따라 ‘madness’, ‘punishment’, 또는 ‘sexuality’ 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권력과 권위를 갖춘 새로운 담론/진리를 생산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실천들을 통제하리라는 통지.

@ 담론에서 권력/지식으로(From discourse to power/knowledge)

푸코는 지식과 권력 사이의 관계,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그가 제도적인 ‘장치’(apparatus)와 그 ‘테크놀로지’(technology) 라고 부르는 것 안에서 작동하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푸코의 장치 개념에는, 예를 들어, 언어학적거나 비언어학적인 모든 다양한 요소들--예컨대, 담론, 제도, 건축디자인, 규정, 법규, 행정적 대책, 과학적 진술, 철학적 명제, 윤리, 박애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장치는 언제나 권력 놀이에 새겨져있는데, 또한 그것은 항상 어떤 지식의 성격을 갖는 것들과 연관되어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사회의 지식과 권력 그리고 신체(body) 간의 관계들을 핵심적인 탐사 주제로 설정한다. 여기서 지식은 항상 사회적 실천 행위를 규제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지식은 언제나 권력관계속에 얽히고 설켜있다. 담론과 지식 그리고 권력 간의 관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러한 방식은 재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푸코의 접근 방식은 맑시즘과 같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학적 이론과 유사하게 보인다. 하지만, 푸코는 맑시즘이 지식과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단순히 계급문제로 환원시켜버렸다고 비판한다. 푸코가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맑시즘 이론이 주장하는 경제 또는 계급 환원론적인 입장에 강하게 반발한다.)

푸코에게 권력은 어떤 한 중심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은 망과 같은 조직에 의해 전개되고 행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두 일정 정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함께하는 권력의 순환 속에 갇혀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 관계는 모든 수준의 사회적인 대상들에 침투해있고 따라서 정치,

경제, 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만큼이나 가족문제나 성 문제와 같은 사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발견된다. --> 더구나, 권력은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것만이 아니라, 권력은 생산적productive이기도 하다. 따라서 권력은 쾌락과 지식을 유발시키고 담론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처벌 시스템(the punishment system)은 서적, 학술 논문, 법규, 새로운 통제와 저항 전략, 의회에서의 논쟁, 일상적 대화, 고백, 법적 브리핑과 탄원, 간수 훈련 요강과 같은 것들을 생산한다. --> 성(sexuality)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섹스관련 실천(예: 안전한 섹스)과 포르노그래피 산업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담론들, 예를 들어, 섹스에 관한 이야기,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설교와 법률, 소설, 잡지 기사, 의학적 진단 및 상담, 수필과 단편 글들, 논문이나 연구 프로그램 등을 생산해낸다. 푸코는 우리의 관심을 커다란 총체적인 권력 전략으로부터 권력이 순환되는 여러 지역적 과정과 전법, 메커니즘, 그리고 효과 등으로 옮겼다. 이러한 것들을 푸코는 권력의 '미시물리학'(micro-physics)라 부른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우리 사회의 깊은 바닥까지 바로 침투한다.

=====

<담론분석 I: 텍스트, 상호텍스트성, 컨텍스트>

[참고문헌] Gillian Rose,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Materials*(2nd. ed.), London: Sage, 2001, ch. 6.

1. 푸코의 담론관련 개념 정리

- * 담론(discourse): 진술들의 다발로서 사물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과 그러한 사고를 토대로 행동하는 방식을 구성해주는 진술들의 다발. 달리 말해서, 세상에 대한 특정 지식으로서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사물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 모양을 잡아주는 것.
- *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텍스트성은 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어떤 담론 이미지나 텍스트(any one discursive image or text)의 의미는 그 텍스트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의존하는 방식을 가리킴.
- * 담론구성체(discursive formation): 이것은 의미들이 어떤 특정한 담론 안에서 함께 연관되는 방식을 말함. 푸코(*The Archaeology of Knowledge*, 1972)의 말대로, 우리가 언제나 어떤 규칙성(a regularity)(예: 질서, 상관관계, 위상과 기능, 변형 등)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론구성체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항상 남성의 거세를 의미하고, 남성은 항상 관음주의적이고 물신주의적인 응시를 실행한다면 남녀 간의 그러한 상관관계와 위상은 담론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 * 권력(power): 푸코에 의하면, 담론은 권력적이고, 담론의 권력은 그것이 생산적(productive)이기 때문임. 담론은 인간주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훈련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담론이 억압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담론은 기존의 인간주체에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주체가 담론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 또한 담론이 이해하는 바대로 담론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부류의 남성성이 관음주의적이고 물신주의적인 담론시각성(discursive visibility)을 통해 생산된다.
--> 푸코의 권력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억압받는 바닥 층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은 담론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든지 있다. 여러 담론들은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각자 더 큰 효력을 발휘하려 한다.
- * 권력/지식(power/knowledge): 특정 담론이 지배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특별히 강력한 제도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보다는 그 담론들이 스스로 절대적인 진리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진리 자격 주장은 바로

권력/지식 교차로의 중심에 놓여 있다.

* 진리체제(regime of truth): 푸코에 의하면, 지식과 권력은 상호 의존적으로 겹쳐져 있다. 그것은 모든 지식이 담론적이며, 모든 담론에는 권력이 스며들어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효과 생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담론들이 그 지식들은 진리라는 가정과 주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때, 진리가 진리로서 자격을 주장하는 특별한 기반이 바로 푸코가 가리키는 진리체제이다.

2. ‘담론분석 I’과 ‘담론분석 II’

푸코의 작업에 근거하는 두 가지의 방법론적인 틀을 ‘담론분석 I’과 ‘담론분석 II’으로 분류해 보자.

- **담론분석 I.** 이 담론분석은 담론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실천(practice)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영상 이미지(visual images)와 언어 텍스트(verbal texts)를 통해 표명되는 담론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 이 때 담론은 모든 형태의 이야기와 텍스트를 가리킨다. 주요 관심은 담론(discourse), 담론구성체(discursive formations), 그리고 이들의 생산성(productivity) 측면이다.
- **담론분석 II.** 이 담론분석은 영상 이미지나 언어 텍스트보다는 여러 제도의 실천들(practices of institutions)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 방법론은 언제나 명백하지 않다. 권력, 진리체제, 제도, 테크놀로지 등의 이슈에 더욱 명시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향.

@ 첫 번째 유형의 담론분석은 주로 언어에 관심. 언어가 주요 연구 토픽이며, 사람들이 사회세계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관심. 예를 들어, 이미지가 어떻게 사회세계에 대해 특정 관점을 구축해내는지 탐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라서 *이미지 자체(image itself)*에 세심한 관심을 보임. 이러한 분석은 담론이란 것이 어떤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특별한 관점이나 설명이 어떻게 특정 진리체제를 통해서 사실로 또는 진리로 또는 자연스럽게 확립되는가에 대하여 탐구한다. --> 또한, 모든 담론들이 가지는 설득(persuasion) 전략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차이(difference)와 권위(authority)의 사회적 구성에 주의하면서 담론적 권력의 사회적 구성에 관심을 보임. 따라서 담론의 사회적 생산과 그 효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

3. 자료 찾기: 일반론

* 담론들은 아주 다양한 이미지들, 텍스트, 그리고 실천들을 통해 표명되며, 이들은 모두 담론분석을 위한 적절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담론분석을 시작하려면 어떤

종류의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주의깊은 생각이 필요.

* 대개의 경우 리서치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다른 연구자들의 작업을 통해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880년대 영국에서 런던의 the East End에 대한 담론적 구성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작업을 보면 몇 가지의 자료들이 반복적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그 당시의 신문들(전국신문 보다는 런던 지역신문); 그 지역을 방문한 당시 저널리스트나 성직자 또는 자선사업가 등의 설명이 포함되어있는 여행일지나 팸플릿 또는 책들; 소설이나 시; 정부가 발행하는 다양한 문서들, 예를 들어 센서스 자료, 지역보건소 직원의 보도자료, 또는 그 외 행정부의 보고서들. 이러한 자료들은 종종 그림 이미지, 지도, 만화, 또는 그 외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로 설명됨. 역사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 촬영된 사진들. 중요한 사실은 이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에 의해 절충적으로 활용된다는 것. 예를 들어, the East End 생산과 관련되는 비주얼 구성만을 살펴보려는 연구에서도 그림, 조각, 드로잉 등 다양한 부류의 자료들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의회 기록부, 소설 및 비소설 글들까지도 활용됨. 어떤 면에서, 담론은 다양한 기록물이나 현장 정보를 관통하는 진술들에 드러나는 일관적인 패턴이다.

--> 중요한 것은, 연구에 착수함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은 생산적이어야 하면서도 흥미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출발점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는 기록물과 현장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 중요. 이미 출발점으로 택한 자료들에 이미 많은 다른 이미지들과 텍스트들이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고 같거나 또는 비슷한 연구주제를 다룬 다른 연구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담론분석은 말로 된 자료나 인터뷰 자료 또는 자연스러운 이야기 녹음 자료들을 활용할 수도 있음.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담론분석을 통해 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자료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발견되는 것.

--> 이러한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실제, 담론분석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느 시점에서 자료수집을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 어쨌든, 담론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했는가가 아니라 그 질(quality), 즉 풍부한 텍스트 디테일에 관한 것.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고유한 필요에 따라 모든 가능한 자료들 중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소수의 자료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4. 담론분석 I: 담론의 생산과 수사학적 구조

* 성공적인 담론분석은 엄밀한 과정에 달려있기보다는 박식함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담론분석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담론적 진술들에 대한 구조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진술들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 즉,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진술하는가 등에 관심 차원이다. 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4.1 담론의 수사학적 구조

담론분석의 한 주제는 담론 자체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정 담론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특정 종류의 지식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 이런 해석적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분석 자료에 대한 모든 선입관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그 자료를 읽어보고 관찰한다. 푸코(*The Archaeology of Knowledge*, 1972)의 제안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범주는 모두 유보시켜야 한다. 물론 완전히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범주가 줄 수 있는 안이함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범주는 본래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다. 그것 또한 특정한 규칙에 의존해서 구성된 것이고 따라서 그런 구성이 가지는 적법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분석하려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통찰력을 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연구자가 간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안내할 것이다. 영상 이미지의 경우라면 구성적 차원의 해석이 가져다주는 세세한 기술이 한 몫을 해서 연구자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행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다루고 있는 자료 속으로 흠뻑 빠져들도록 하라. 텍스트는 읽고 또 읽고, 이미지는 보고 또 보아야한다.

--> 그렇게 해서 자료에 친숙해진 다음에는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내용분석 연구에서 활용되곤 하는 코딩 과정 같은 것이다. 자료에 친숙해지면 **핵심 주제(key themes)**, 예를 들어 **핵심 단어(key words)**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recurring visual images)**와 같은 것을 찾아라. (물론,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이미지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단어들이나 이미지들 리스트를 만들고 자료를 꼼꼼히 뒤지면서 어디에서 그들이 등장하는지 기록해둔다. 그리고는 그 단어들과 이미지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관계들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이러한 과정은, 푸코의 말을 빌리면, “진술들 간의 관계들(저자가 이들에 대해 모르고 있을지라도, 각 진술들의 저자가 다를지라도, 저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진술 다발들 간의 관계들(그 다발들이 같은 것 또는 인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다발들이 공식적으로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더라도, 그 다발들이 서로

교환될 수 없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진술들, 진술 다발들, 그리고 또 아주 다른 종류의(기술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건들 간의 관계들”(The Archaeology of Knowledge, 1972) 을 살피는 것이다.

--> 어떻게 특정 단어나 이미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는가? 의미있는 단어와 이미지 집단은 존재하는가? 그런 집단 내에는 어떤 관계들이 확립되어있는가? 푸코는 여기서 좀 더 넓은, 비담론적인 담론맥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담론이 의미와 사물을 생산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에 결국은 담론의 생산성에 대한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매춘부’가 반복적인 신체와 장소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담론적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Nead(1988)의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Nead는 매춘부 형상과 관련하여 글로 쓴 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 아주 다양한 영상 이미지들을 모은 후, 실제 어떻게 일부 핵심적인 영상 요소들이 매춘부 생산에 기여했는지 보여준다. 매춘부는 돈을 위해 성을 판다. 따라서 매춘부는 부르주아 집단의 여성성 담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구성되며 최하층 집단으로 구분된다. 매춘부는 구제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매춘부는 악녀이기도 하고 사악한 사회의 희생자이기도 한 것으로 투영되었는데, 여하한 경우라도, Nead가 주목하듯이, 그녀는 정상적인 여성성 밖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방인적인 위치는 그녀의 (도발적인) 의상과 응시방식(특히 뻔뻔하게 남성을 응시하는 것)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찻값을 치루는 것으로 표현된다. 영상으로든 글이든 매춘부에 관한 서사물에서 그녀는 결국 화려한 외모와 의상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the East End 거리로 쫓겨나서 결국은 테임즈 강가의 어둡고 음울한 곳으로 밀려나 배회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런 장소야말로 그녀가 최종적으로 머무를 곳이 되고 결국 그녀는 불가피하게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사회가 그녀에게 내리는 판결인 것이다. 그녀의 사체는 그 사회의 대변자들(강 사람들, 시신을 검시하는 경찰, 시신을 바라보는 행인이나 시신을 부검하는 의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장면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의상, 신체조건, 장소, 응시 등은 매춘 이미지와 관련하여 Nead가 밝혀내는 몇 개의 핵심적인 시각 주제들(key visual themes)이다. 그녀를 재현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그녀가 악녀와 희생자중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받긴 하지만)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거듭 반복된다.

--> 위와 같은 코딩과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전혀 뜻밖의 질문들이 중요한 것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본래의 자료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담론분석은 내용분석과 달리 아주 신축적이다. 푸코식의 담론분석 틀/framework)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연구자의 탐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분석 틀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 한 가지는 어떻게 특정 담론이 설득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고려이다. 담론은 어떻게 *진리효과(effects of truths)*를 만들어내는가? 이 문제는 담론분석이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담론의 단면이다. 종종 이 문제는 진리임을 주장하기, 과학적 확신, 또는 사물의 자연스러움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을 포함한다. 1889년에 Charles Booth에 의해 출판된 한 빈민 지도(the map of poverty)는 과학적임을 근거로 그 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한 한 the East End에 대한 진술의 사례가 된다. Booth는 당시 34명의 지역 관리들을 활용하여 the East End에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민으로 살고 있는가 계산하여 그들의 위치를 지도로 나타냈다. 이 조사는 몇 가지 면에서 과학적인 것으로 보였다. 첫째, Booth 에 의하면 조사 대상에 거의 모든 the East End 주민들이 포함되었다. 둘째, 조사 결과가 보여준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보였고, 그래서 그 지도의 시각적 효과는 결정적이었다. 셋째, Booth의 조사와 지도는 그 당시 과학적 절차의 핵심으로 생각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분류했다. Booth는 the East End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빈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도덕적 부패보다는 그들의 무책임함에 기인하는 것이었고, 그 최하층민의 단 2%만이 후자 집단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종류의 도덕적 분류 방식은 빅토리안 시대의 다른 과학 분야의 중심 경향이었는데 특히 인종적 차이에 대한 작업을 하는 연구에서 그러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the East End 방문을 아프리카 방문과 비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Booth는 또한 그의 데이터에 대한 통계학적인 분석에 의지했는데 그것이 그의 주장에 과학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으로 인해서 Booth의 지도는 대부분의 당시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진실이라고 여겨졌다.

--> 담론분석에서 강도되는 또 다른 하나는 담론 내에 포함되어있는 *모순(contradiction)*적인 현상이다. 담론구성체에서 어떤 구조를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논리적이거나 일관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떤 담론구성체의 힘은 모순적인 내용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에 관련하여 Jones(1989)의 연구를 들어보자. 이미 살펴보았듯이 1880년대가 시작되면서 영국 the East Ender는 도덕적 타락의 상징처럼 마킹되면서 현실구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구축은 당시 신문이나 소설, 팸플릿과 시 등 그러한 현실이 표명되는 자료들을 대하는 부르주아 독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매춘이 퍼뜨릴 수도 있는 질병에 대한 공포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남성들이 그러한 질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종종 노동계급 매춘굴을 방문하는 부르주아 계급 남성들이기도 함). 종종 중산층 계급은 사회적인 무관심속에 존재하는 최하층 계급이 초래할 수도 있는 사회불안에 대한 공포도 있었다. 그 결과 1880년대 이후 이러한 공포를 해소하기 전략으로 the East

End에 대한 다른 이미지가 개발되었다. 한 예로, 1889년에 있었던 질서정연한 부두 스트라이크는 대부분의 빈민들은 건전하고 반란적이지 않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그리고, 'cockney'에 대한 생각도 the East End의 한 단면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전환되었다. 이제 'cockney'는 마음씨 좋고 쾌활하며 유머감각이 있으며 독특한 의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축되었다. Jones에 의하면, 이러한 담론의 효과는 'cockney'를 다르긴 하지만 사랑스러운 부류의 집단으로 구축함으로써 최하층민들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는 사회적인 위협에 상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었다. cockney에 관한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는 당시 뮤직홀 음악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곤 했다. 이렇듯, Jones의 분석 작업은 the East End에 대한 담론 구축 내에 있는 모순들을 강조한다.

--> 또한, 담론분석은 보이지 않거나 언급되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작업을 포함하기도 한다. 부재(absences)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생산적이다. *비가시적인 것(invisibility)*은 가시적인 것(visibility)만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he East End에는 많은 흑인 커뮤니티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런던 토박이 'cockney'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cockney'는 항상 백인으로 상상되곤 한다. 즉, 'cockney'는 the East End 주민의 인종은 당연히 백인인 것처럼 재현함으로써 인종 차이 문제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지우기는 1958년 Notting Hill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무산되었다. 그 이후 인종 문제는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 그래서, 적절한 담론분석은 세부적인 것에 대한 아주 주의깊은 관찰에 달려있다.

4.2 담론의 사회적 생산 탐사하기

모든 담론은 특별한 사회적 환경 안에서 발생한다. 어떤 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수사학적인 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담론의 *제도적인 위치(institutional location)* 또한 결정적이다.

--> 푸코 또한 특정 진술들이 만들어지는 사회 현장을 돌아보고 진술자가 차지하는 사회적 권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1972). 따라서, 권위가 부여된 출처로부터 나오는 진술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출처로부터 나오는 진술에 비해서 더 생산적이기 쉽다. the East End의 담론적 구축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역사가들 또한 거의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힘 있는 자들의 이미지나 글에 의존하도록 강요된다. 권력자들은 책과 그림을 통해 그들의 담론이 실제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고, 또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같은 곳의 자료는 그런 것들도 채워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제 the East End에 대한 담론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1880년대 실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진술한 자료들을 발견하기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담론 생산의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는 그것의 효과문제와 관련해서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담론 생산의 사회적 맥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가정하고 있는 수용자(*audience*) 관련 이슈이다. 같은 사건에 주어지는 설명도 수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주 달라질 수 있다. 또는 같은 장면이나 사건에 대한 시각 이미지도 테크놀로지나 장르 같은 측면에서 수용자에 따라 아주 달라질 수 있다. 1888년 the East End에서 있었던 한 살인사건을 다루는 시각 이미지 사례를 보자. 당시의 일반 신문은 예를 들어 살인사건 장소와 희생자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스케치나 지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당시 시작된 선정적 저널리즘에서 목격하곤 하던 것이다. 범죄학자라면 더욱 끔찍한 사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진은 과학자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

<담론 분석 II: 제도와 응시방식(Institutions and Ways of Seeing)>

[참고문헌] Gillian Rose,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Materials*(2nd. ed.), London: Sage, 2001, ch. 6.

* 본 장에서는 visual objects를 다루고 또한 Tony Bennett(1995)와 Eilean Hooper Greenhill(1992)과 같은 연구자들이 행하는 푸코식 비판의 대상이여온 다른 두 종류의 제도, 즉 아트갤러리(the art gallery)와 박물관(the museum)을 다루는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예술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와 기술들에 의해 어떻게 영상 이미지와 전시물들이 (예를 들어, 'art'로)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큐레이터와 관람자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되는지 탐사한다. 하지만 이들이, 한편으로 권력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강압적이지도 않다. 이들의 훈육 방식은 좀 더 미묘한 구석이 있으며, 따라서 담론분석 II 방식이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방식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담론들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를 탐사하기 위한 더욱 유익한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이를 위한 사례는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후부터는 AMNH로 표기)이 될 것이다.

--> 제도로서의 아트갤러리와 박물관의 지위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의 담론분석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 갤러리와 박물관의 장치에 대한 묘사 방식 조사.

- 갤러리와 박물관의 기술에 대한 묘사 방식 조사.

- 어떻게 두 번째 형태의 담론분석이 이러한 제도들이 관객들을 생산하고 훈련시킨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한다.

- 이러한 담론분석 방법론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본다.

1. 담론분석 II를 위한 자료들

담론 분석의 이러한 관점을 위한 여러 자료들은 7장에서 논의한 담론 분석에 의해 전개된 것만큼 다양하다. 특별한 제도의 유형으로서 갤러리와 박물관의 푸코적 관점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Tony Bennett의 '박물관의 탄생'(1995)에서 논의되는데, 그는 자료의 다양한 활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그는 19세기 후반의 갤러리와 박물관에 대하여 논의한 글로 쓰여진 텍스트(written texts)들을 주의깊게 고찰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모두 공히 좀 더 공중에게 개방적인 갤러리와 박물관 설립을 주장하는 개혁가, 자선사업가, 공무원 그리고 큐레이터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박물관과 박물관의 실천들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에 대한 검토연구는 이렇게 글로 된 종류의 역사적인 자료에 갤러리와 박물관에 관한 내용과 그들의 선언에 대한 연보와 같은 다른 유형의 문서들을

보충해준다. 박물관과 갤러리의 기획자와 큐레이터 그리고 디자이너에 대한 인터뷰 기록들도 역시 당대의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역사적인 연구와 당대의 연구들 모두 종종 사진이나 또는 건물, 전시실 그리고 전시품들에 대한 시각 이미지들을 단순히 글로 설명한 내용에 대한 도해자료로서 활용하기도 하며, 또한 그 건물들의 건축양식(architecture)(디자인, 장식, 비문, 레이아웃 등)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현대의 박물관과 갤러리들에 관한 연구들은 또한 종종 직접 그러한 장소들 방문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공간을 방문하고 그 안에서 작업하는 방식에 대한 관찰(observation)에 의지하기도 한다.

초점

갤러리 혹은 박물관을 방문해보자. 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전시물, 솥의 물건들은 응시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는 다른 사물들, 예를 들어, 건물 건축양식, 평면도, 안내인, 그리고 방문자 등을 관찰해보자.

2. 갤러리와 박물관의 장치(apparatus)

Bennett은 감옥과 근대 박물관은 역사적으로 같은 시기에 걸쳐서 탄생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박물관과 감옥이 유사한 훈육과 감시의 원칙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Bennett은 공공 박물관과 갤러리의 존재가 19세기 평자들에 의해 정당화되는 여러 방식들, 예를 들어, 노동자 주정꾼들에 대한 교정수단으로서, 노동자 계급의 불만과 폭동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예의와 도덕에 관한 교화 수단으로서 박물관과 갤러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Bennett이 전반적으로 강조한 점은 이러한 담론구성체가 박물관을 훈육기계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관심은 박물관과 갤러리에 침투한 권력에 있었고, 그는 그러한 권력을 제도의 장치라는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그들의 디자인과 실천의 모양을 잡는 문화와 과학의 담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Bennett은 박물관과 갤러리의 탄생과 관계된 특별한 ‘문화’ 담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박물관과 갤러리의 권력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사회적 관리의 도구로 ‘문화’를 사용한다. 그는 이러한 두 제도가 사용하는 ‘문화’의 정의는 어떤 면에서 다르며, 그런 다름은 그들이 전시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박물관에서 ‘문화’는 19세기 후반의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박물관은 종종 특별한 사회적 그룹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를 가진 대상물을 수집한다고 설명한다. 19세기에 박물관은 식민지의 유물들을 수집하고 전시하였는데, 여기서 식민지인들은 서구인들보다 더욱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닮았으며, 덜 문화적인 것으로 보였다. Bal(1996)은 1991년 AMNH를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MNH는 제국주의와 백인 담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시실은 포유류와 조류의 전시실 이후에 바로 식민지인들의 삶의 양식을 보여줌으로서 어떤 그룹(식민지)들은 다른 그룹(서구)들 보다 더욱 자연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한다. 반면에 갤러리는 인간의 정신을 고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문화’의 정의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대상물들은 ‘예술’로서 정의되어 전시된다. 따라서 서구의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과 같은 대상들은 ‘예술’로서 구성되며, 이러한 전시에 의해 고상하고 정신적 측면에서 숭고함을 가진 것으로서 인식된다.

--> Bennett는 또한 박물관 권력장치의 일부인 특별한 과학 담론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박물관에서 대상물은 언제나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주장되는 원칙에 따라서 분류되고 또한 그 대상들이 역사적인 발전, 과학적 이성, 또는 인류학적 분석 개념 중 어떤 것과 관계되는가에 따라 분류된다고 한다. Bal(1996)은 복잡한 문화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차이들이 갤러리와 박물관이 New York의 Central Park의 동쪽과 서쪽 중 어떤 방향에 접해있는가와 관계가 있음에 주목한다. 즉, 뉴욕시 맨해튼의 the East Side는 ‘문화’ 영역으로, the West Side는 ‘자연’ 영역으로 나누는 구분은 결국 역사적으로 일부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예술가들의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대부분의 다수에 속하는 전 세계 사람들은 정태적인 존재의 지위로 전락시킨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사박물관인 AMNH의 디오라마에서 ‘자연’은 하나의 정체된 상태로 고정되는 배경(a backdrop)이 되고, Met(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불가피한 진화(evolution) 현상으로 제시되는 ‘예술’(art)은 story 자격이 부여된다고 지적한다. (cf. 우리나라의 ‘강북’과 ‘강남’ 지역)

-->Bennett(1995)는 또한 박물관과 갤러리의 **건축양식(architecture)**이 이러한 문화, 예술,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담론들을 접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많은 19세기 박물관과 갤러리 건축을 보면 눈길을 끄는 인상적인 **전면(facades)**과 **입구 홀(entrance halls)**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통해 함축적으로 표명되는 문화와 과학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영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고양되듯 디자인되었음을 지적한다. --> **내부 레이아웃(internal layout)** 또한 과학과 문화 담론을 반영한다. 갤러리의 경우, 그림들이 시기와 유파를 기준으로 따로 분리되어있는 방에 그룹 그룹으로 전시되고, 이것은 다시 이러한 시기, 유파, 그국가 등의 구별을 자연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한 중세에서 현재까지의 페인팅의 발전 내러티브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축적 접합뿐만 아니라 Bennett은 특히 이러한 담론적 장치를 통해 생산되는 **사회적 주체(social subjectivities)**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첫번째는

이 새로운 제도들의 후원자들(patrons)이다. 박물관과 갤러리 정책과 후원과 관련된 떠오르는 전문가들은 중산층 백인 남성들이고, 이들의 사회적 위상은 자본주의, 가부장제,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거대한 담론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것으로 주창되는 ‘전문성’(expertmess)에 의해 생산된다. 두 번째는 과학자와 큐레이터들이 있다. 이들은 기술적인 전문가들로서 분류와 전시의 실천을 통해 과학과 문화 담론들을 운용한다. 세 번째로는 방문객들(the visitors)이다. 19세기의 박물관 및 갤러리 후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방문객들은 도덕적으로 취약하고, 아마도 알콜중독이고, 노동자계급의 남성들로 구성된다. 예술에 대한 관조와 박물관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이러한 후원자들에 의해 담론적으로 구축되었고 여기에는 특별한 박물관과 갤러리 방문법이 포함되어 있다. Bennett에 의하면, 이러한 방문법에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오락보다는 질서정연한 감상이 포함되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그 방문객들을 문명적이라고 여겨지는 행위 방식을 갖추도록 방문객들을 훈련시켰다. --> Bennett은 또한 갤러리 방문객 구축 방식과 박물관 방문객 구축 방식을 구별하였다. 예를 들어, 갤러리 방문객들은 주로 부르주아 계급 사람들이며, 예술이론(Art theory)은 중산층 갤러리 goers들만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예술교육에 노출되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계급적 구분은 사실 좀 선부를 수 있음을 Bennett도 의식하였음). 한편, 박물관의 경우는 달랐는데, 이 경우에는 종종 분류시스템이 노골적으로 표명되어 방문객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스스로 전시물들을 모아보고 재구성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비판적인 능력을 갖게 하였다. --> 한편, Bennett은 공공 박물관과 갤러리를 지원하는 국가정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역할이 박물관과 갤러리 방문객들을 단순한 유순한 신체로 만들기보다는 시민(citizens)으로 되게끔했고 따라서 잠재적인 민주화 운동의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3. 갤러리와 박물관의 테크놀로지와 그 효과

3.1 전시의 기술(technologies of display)

박물관의 경우:

- 1) 전시 케이스 - 벽이나 테이블 위에 부착
- 2) 개방적 전시 - 커버가 없음
- 3) 재구성(reconstruction) -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 장면. AMNH의 디오라마(dioramas 축소세트)
- 4) 시뮬라크라 - 컬렉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위해 박물관 측에서 제작한 물건들)

이러한 여러 전시 기술들은 각각 다양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그러한 효과들은 종종 글로 쓰여진 텍스트와 같은 다른 기술들과 함께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Lidchi(1997)는 박물관에서의 **재구성**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을 일상적인 맥락에서 엮어서 구축한다. 따라서 재구성은 ‘정확한’ 결합을 통한 ‘진짜’와 같은 인공물 전시로 꾸며지며, 이 때의 전시물은 모조품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 **유리 전시 케이스**의 경우 한 눈에 보이는 재현의 정확성이라는 맥락 대신 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 진실성을 부각시킨다. 전시물이 케이스 안에 놓여졌을 때, 그것은 재구성 기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상 맥락(everyday context)에서 떨어져나와 박물관의 분류 도표 내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문객에게 전해지는 효과는 진실효과이며, 그것은 재현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분석적인(analytic) 효과가 된다.

--> AMNH의 여러 논의는 전시 케이스 혹은 **디오라마(축소모형)**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생산된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논의들은 종종 전시의 공간적 설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다양한 전시물들이 서로 관계되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Haraway(1989)는 박제된 아프리카의 거대 포유류들과 그들의 서식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배경을 담고있는 디오라마에서 대부분의 동물 집단은 단지 몇몇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개 거대한 경계적 태도의 수컷과 한, 두 암컷과 그 외 한 마리 새끼 동물로 구성된다. 이들 동물 집단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보이며, 성별에 따른 기능의 구별(신체적 특성이 드러나고, 각자 맡은 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편재하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헤러웨이는 여기서 ‘가부장제가 자연화된다’고 말한다.

갤러리의 경우:

그림이 어떻게 *프레임되고(framed) 매달리게되는지(hung)* 고려한다. 그림은 종종 전시실 벽에 일렬로 걸리게 되는데, 이 방식을 따라서 관람객은 이동하며 그림을 감상하게 된다. 이때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각각 독립적인 이미지들이다. 이러한 방식은 20세기에 고안된 실천들이다. 참고로, 19세기에는 그림이 갤러리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여러 그림들로 꽉 채워졌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더욱 상세해지는 분류의 양식과 연관되어 있다. 20세기에는 보편적 진리 추구를 위한 감상이라는 관점의 예술담론이 널리 퍼지게 되어 전시 그림을 거는 실천 방식도 변화했다. 그림이 옆으로 나란히 걸리게 됨으로써 그림들은 각각의 독자적인 예술작품들로 감상되게 되었다. 또한 이는 관람객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감상하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 결론적으로, 이미지와 관객 모두 이러한 그림 걸기 테크놀로지로 인해 개별화되고(individualized) 관객들은 관조의 시선으로, 그림은 관조의 대상으로 되었다.

초점:

당신이 방문하였던 갤러리 혹은 박물관에서 사용된 전시 기술은 어떤 것들인가? 본장의 논의 내용들이 그 기술들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전시의 기술들이 있었는가?

3.2 텍스트적 해석 테크놀로지와 시각적 해석 테크놀로지

1) **라벨과 캡션(labels and captions).** 이는 이미지와 전시물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갤러리의 그림 전시에 수반되는 캡션이든 박물관의 라벨이든 모두 전시되고 있는 대상의 특정 부분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초점: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고 라벨과 캡션을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라벨과 캡션의 효과는 무엇인가? 두 세 개의 이미지 혹은 전시물을 선택하고 새롭게 라벨을 구성해보자. 그러한 새로운 라벨은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가? Bal(1996) 또한 역시 박물관의 라벨과 캡션의 리얼리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 **패널(panels).** 갤러리와 박물관의 전시실에는 흔히 텍스트로 구성된 커다란 전시 패널들이 있다. 이들은 종종 전시된 이미지와 전시물에 대한 광범위한 맥락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패널들은 흔히 라벨과 캡션보다도 더욱 노골적으로 해석적이다.

3) **카탈로그(catalogues).** 대부분의 대형 전시와 여러 갤러리 그리고 박물관은 상품 판매를 위한 카탈로그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카탈로그 역시도 해석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라벨, 캡션 그리고 패널과 마찬가지로 카탈로그도 매우 특별한 지식들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영상 기술들은 박물관 혹은 갤러리의 효과를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박물관은 ‘실제’와 같은 전시물을 보여주기 위해 패널 혹은 카탈로그에 사진을 사용한다. 혹은 전시물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서 전시물의 확실성과 전시물의 원형의 활용이라는 맥락을 더욱 굳건히 해준다. 갤러리는 전시에 있어서 패널의 사용이 좀 덜 하지만, 카탈로그의 사용이 빈번하며, 이는 명백하게 사실적인 이미지로서 나타난다.

3.3 레이아웃(layout 배치도)의 기술

각 전시실에는 레이아웃이 있다. 박물관은 일종의 분류 기제로서, 주어진 공간 속에서 적절한 효과 배분을 통해 이질성(heterogeneity)을 다루어야한다. 따라서 전시와 빌딩 그리고 전시실의 공간적 조직화는 관객으로하여금 특정한 지식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하다.

전시실은 특별한 효과를 내기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장식되기도(decorated)** 한다. 현대 미술 갤러리에서 그리고 예술사진을 보여주는 갤러리의 벽은 종종 흰색이고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작은 의자들이 설치되는데 이러한 전시 경향은 2차세계대전이후 흔하게 되었다. Duncan(1993)은 이러한 전시를 미국이 냉전 상황에서 문화적인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본다. Brian O'Doherty(1996)는 이러한 전시 방식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술'을 제외한 모든 거추장스러운 방해물들이 제거되고, 빈 갤러리는 이제 마음(Mind)이라고 하는 탄력적인 공간으로 채워진다고 했다. 흰색으로 구성된 갤러리 공간의 미니멀리즘은 다시 또 한번 예술작품을 마음을 산만하게하는 어떤 방해물로부터도 분리된 상태에서 감상해야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러한 갤러리에 오는 방문객들을 그러한 조건에 적절한 주체로 생산해낸다.

초점:

모든 갤러리와 박물관의 벽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방문해 본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는 어떤 다른 장식 요소들이 중요했나? 벽, 조명, 카펫, 스크린, 그 외 물건 들의 색은 어떤 것이었나? 그 효과는? 만약 당신이 방문한 갤러리의 몇몇 방이 흰색이고 다른 방들은 다른 색으로 칠해져있었다면 전시물품과 그것이 생산해내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흰색 방과 희지 않은 색 방의 차이는 무엇인가?

3.4 촉각과 관련 기술들(tactile technologies)

관람객에게 적용되는 박물관과 갤러리 공간의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전시물들을 만질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는 거의 보편적인 규칙이다. 이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강요된다. 우선 전시물이 유리 케이스 안에 진열되고, 그림 앞에 로프가 쳐져있고, 감시인이 방문객을 감시한다. 여기서 다시금 푸코의 문제의식이 상기되는데, 이러한 전시의 형태는 어떠한 유형의 주체를 생산하게 되는가? 분명히 이는 만지기 보다는 눈으로 보는 방문객을 만들어낸다.

초점:

지금까지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활용되는 여러 작동사니 기법들을 열거하였다. 이는 지식/권력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박물관과 갤러리가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박물관과 갤러리가 그림과 전시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관람과 전시기획에 대한 어떤 주체성을 생산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3.5 전시 이면의 공간들

전시물들이 전시되는 전시실은 박물관 혹은 갤러리의 지식/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보관소, 아카이브, 연구실 그리고 도서관, 사무실, 편의 시설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Hooper-Greenhill(1992)에 의하면, 이러한 공간들은 연구자들은 접근이 가능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박물관과 갤러리가 그들의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큐레이터, 연구자, 디자이너 그리고 경영진들과 같은 박물관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공간들은 공공 전시 구조의 구성과 관련된 계획들이 실천되게끔 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제를 알고 있다는 것,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와 문외한 사이의 구별이 있게된다. 공공 박물관에서 주제의 생산은 박물관의 숨겨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반면에 그러한 주제의 소비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제도내의 관계는 숨겨지고, 생산적인 박물관의 업무에 특권을 주기 위해 왜곡된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는 카테고리, 목록, 장치의 편집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기도 하다. (Hooper-Greenhill 1992)

초점:

박물관과 갤러리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제 확실히 방문객들이 마주하게 되는 두 개의 핵심적인 공간인 *shop* 과 *cafe*에 대한 설명들은 거의 없다. 박물관과 갤러리의 기념품 매장과 카페를 방문해보자. 그곳에는 어떠한 담론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 실천은 어떠한 형태인가? 그곳은 전시 공간과 연관되어 있는가? 연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아닌가? 이러한 공간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 논의한 담론분석에 의해 사용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4. 관람객 (the visitor)

박물관과 갤러리는 특정 부류의 방문객을 생산하고, 방문객은 아마 무엇보다도

일종의 ‘눈(eye)’으로 구성되어 대상을 보고, 이해한다. 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일종의 교육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갤러리와 박물관에서 방문객은 그들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제도 내 감시자들에 의해 강요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도 내에서 소품을 한다거나 음악을 연주한다든가 하는 행위들은 금지된다. 이러한 금지를 통한 효과는 제도의 도움을 통해 교양을 갖추고, 점잖은 ‘고상’함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 또 다른 형태의 훈육은 관람객의 공간 이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갤러리와 박물관은 종종 관람객으로 하여금 전시실 레이아웃에 따라 또는 정해진 평면도 상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게끔 한다. 이는 시간에 쫓기는 관람객들을 기대하는 아주 넓은 갤러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때 동선은 관람객이 전시물의 하이라이트로 구성된 것만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일부 갤러리는 그림 앞에 앉을 거리를 설치함으로써 관람객에게 특히 어떤 그림들이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힌트를 주기도 한다. --> 박물관과 갤러리에는 또한 눈에 띄지않는 방식으로 관람객의 행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예술 작품 감상과 박물관 지식 인식은 특정 방식의 관람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들은 단지 규칙과 감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람객들에 의해서도 유지된다. 그래서, 박물관과 같은 곳에서의 사회적 행위의 통제는 명시적인 형태의 훈육에 의한 것 만큼이나 자기가 다른 관람객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초점:

당신의 갤러리나 박물관 방문은 방문객에 대한 제도의 권력에 대하여 어떤 것을 제시하는가? 당신이 목격한 모든 관람객이 적절히 행동하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였는가? 어떤 그룹들은 규칙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었는가?

5 담론 분석 II : 평가

본 장의 담론 분석의 두 번째 방법은 제도적 실천들과 그것의 권력 행사와 연관된 영상 이미지의 이해에 있어서 푸코의 논의를 적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제도적 장치와 기술에 더욱 중점을 두었으며, 영상 이미지와 전시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두었다. 따라서 이는 영상 이미지의 효과와 사회적 생산과 연관된 부분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제도적 실천의 세밀한 부분과 연관하여 어떻게 지배적인 권력 관계의 효과들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의 가능케 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 분석은 비록 전시의 맥락과 연관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을지라도, 이미지 자체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특별한 보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게 된다.

더 읽기:

박물관의 비평적 논의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모은 Donald Preziosi와 Clare Farago의 *Grasping the World : The Idea of the Museum* (2004)이 있다. 또한 Henrietta Lidchi (1997)는 특별한 박물관 전시의 상세한 논의를 전시의 장치와 기술의 세밀한 부분과 연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보는 방법과 연관하여 박물관과 갤러리의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Mary Anne Staniszewski (1998)은 1921년에서 1970년까지의 뉴욕 현대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 실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참고문헌]

- T. Bennett,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1995.
- C. Duncan, *The Aesthetics of Power: Essays in Critical Art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 M.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1972.
- M. Foucault, *Power/Knowledge*, Brighton, Harvester, 1980.
- S. Hall, "The work of representation," in S. Hall(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1997, ch. 1.
- S. Hall, 'The West and the Rest,' in Hall, S. and Gieben, B. (eds.), *Formation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1992, p. 291, 스투어트 홀, '서양과 그 외의 사회들: 담론과 권력,' 스투어트 홀 외 저 / 전효관 김수진 박병영 역, 『현대성과 현대문화』, 현실문화연구, 1996.

- D. Haraway, *Primitive Visions: Gender, Race, and Nature in the World of Modern Science*, London: Routledge, 1989.
- E. Hooper-Greenhill, *Museums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1992.
- H. Lidchi, 'The poetics and the politics of exhibiting other cultures', in S. Hall(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1997, pp. 151-222.
- L. Nead, *Myths of Sexuality: Representations of Women in Victorian Britain*, Oxford: Basil Blackwell, 1988.
- B. O'Doherty, 'The gallery as gesture', in R. Greenberg, B.W. Ferguson and S. Nairne (eds.), *Thinking About Exhibitions*, London: Routledge, 1996, pp. 321-40.
- D. Preziosi & C. Farago (eds.), *Grasping the World : The Idea of the Museum*, Aldershot: Ashgate Press, 2004.
- G. Rose,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Materials*(2nd. ed.), London: Sage, 2001, ch. 6.
- M. A. Staniszewski, *The Power of Display: A History of Exhibition Installatio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London: MIT Press, 1998.